

그 일 후에

이제는 안된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났다. 그랄 왕 아비멜렉과 불가침 조약도 맺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조약이었다. 아브라함 소유의 우물도 생겼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 나그네 아브라함에게 땅도, 그 땅을 물려줄 자손도 생겼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불리웠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 창세기 22:1

오랜 기다림과 시행착오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성취되고 있는 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망설임 없는 대답.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이번 부르심은 이제까지와는 달랐다. 시험하시려고 부르신 것이었다.

아들, 독자, 사랑하는 자, 이삭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 창세기 22:2

갈 곳을 모른채,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했었다. 이제까지 여러 장소에서 제단도 쌓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네 아들, 네 독자, 내가 사랑하는 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번제는 잡아 죽인 제물을 불태우는 제사다. 이런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태울 장작까지 준비해서 아침 일찍 길을 나섰다. 아이 엄마 사라에게는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 창세기 22:3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에 있다.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70km정도. 걸어서 이틀이 걸린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산을 오른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 드리는 모습을 자주 본 모양이다. 지금 무엇을 위해 산을 오르는지 알고 있다. 제물이 없음을 이상하게 생각한 이삭이 묻는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의 대답,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목적지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기 시작한다. 큼지막한 돌을 모아 단을 쌓아야 한다. 제단은 타는 불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쌓는다. 이삭이 내려놓은 나무를 단 위에 벌여 놓았다. 이제 나무 위에 제물만 올려 놓으면 된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나무 위에 놓는다. 그리고 손에 칼을 잡았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 창세기 22:10

잡는 척이 아니라 정말 잡으려 했다. 소를 잡듯이, 양을 잡듯이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와 사자가 아브라함을 말리지 않았다면 정말로 이삭을 도살했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망설임이 없었다. 시험은 끝이 났다. 시험의 목적은 이것이었다.

‘이삭이 먼저냐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먼저냐’.